북한을 위한 기도

주일의 기도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북한 전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해방 전 북한의 교회는 약 3,188여개에 이르렀다. 현재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평양에 존재하며, 1988년 10월 9일 장충성당이 설립되었고, 2006년 8월 13일, 러시아 정교회 평양정백사원 축성식(준공식)이 있었다. 2003년 4월 북한인 4명이 러시아정교 사제 교육기관인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유학하였고, 현재 이들 중 세례를 받고 신부가 된 2명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년제인 평양 신학원은 한 기수가 졸업하면 다음 기수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14기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한 기수당 신입생은 10-12명이다.

모퉁이돌선교회는 북한 지하 교인 수를 14만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때로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하는 발표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2012년 1월 21일 사망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섭 위원장은 2002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남북기독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기독교인 수가 2002년 6월 말 현재 13,043명이라고 밝힌 바 있고,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기독교인은 평양 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 군데 등을 포함해 모두 14,000명이라고 주장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영섭 위원장이 밝힌 성도 수는 물론 지하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봉수교회 재건축 기공식을 가진지 2년여 만인 2007년 12월 21일 입당식을 거행, 2008년 7월 16일 봉헌 예배를 드림. 담임목사 송철민

*칠골교회 1992년 11월 건축되어 헌당된 칠골교회가 있는 곳을 북한에서는 '칠골혁명사적지'로 부르고, 교회당과 함께 칠골혁명사적관과 칠골외가집 창덕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다. 담임 목사 오경우(평양신학원 목회학 교수)

해방 전에 있었던 3,188여 개의 훼파된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같힌 자 된 저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의 기도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2024년 현재 김일성이 사망(1994년 7월 8일)한 지 30년, 그의 아들 김정일이 사망(2011년 12월 17일)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숭배는 여전히 북한 땅을 뒤덮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동상,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주석궁(금수산궁), 주체사상탑, 영생탑, 김정일의 출생지로 둔갑한 백두산 등이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60회 생일을 기념해 1972년 4월 평양 만수대 언덕으로 옮겨 개관한 조선혁명박물관과 함께 그 앞에 세운 동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받침대 3m를 포함해 높이가 23m에 달한다. 한때 동상에 금(金)을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동상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김일성과 김정일이 방문하여 지도한 곳에 있다. 동상 외에 사적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김일성 일가(一家)의 우상화 선전물은 대략 14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김일성 우상화물은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지하에 '긴급대피소'까지 준비돼 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김일성 동상이 생산돼 나오면 이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은 동상에 '경례'를 붙이고, 동상이 세워질 목적지까지 살아있는 김일성에게 하는 것처럼 '경호'해야 한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나면 방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구조'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에 박혀 있다. 북한에서는 운전기술이 제일 좋은 사람이 동상과 석고상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독교 예배당과 같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모임과 학습 등 예배의식을 행하는데 이와 같은 혁명사상 연구실이 행정기관, 산업기관, 군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약 45만 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체를 영구 보존하는 과정에 100만 달러(약 11억원)가 소요됐으며 지속적인 관리비용으로 연간 80만 달러(약 9억 원)가 사용된다. 김일성 사체의 영구보존이 시작된 1994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 17년 동안 북한 당국은 약 150억 원의 비용을 쏟아 부은 셈이다. (출처 : 2011.04.15, 데일리앤케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의 일가(一家)를 숭배하는 우상화 선전물 14만개가 철거되어 우상숭배의 죄악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의 기도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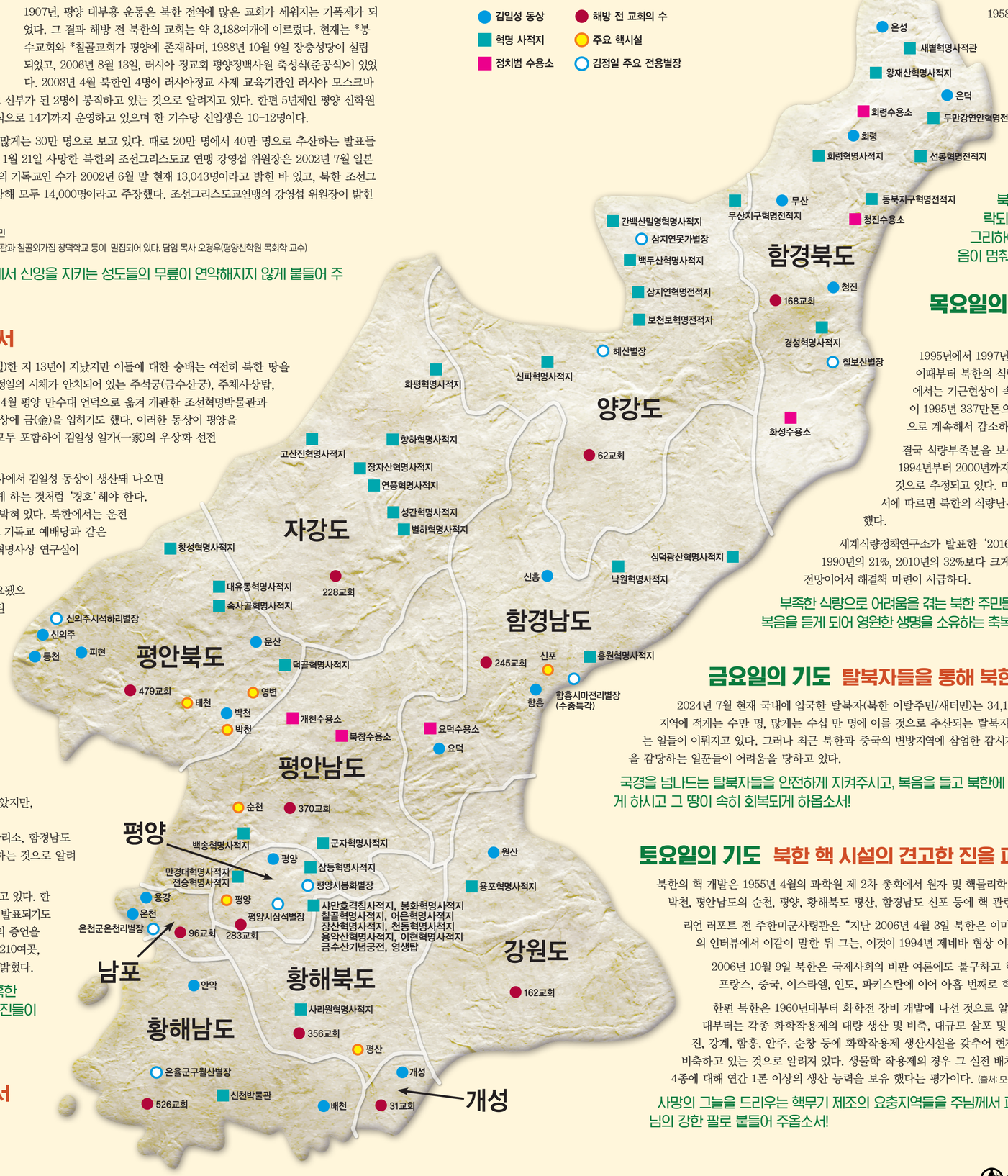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의 숫자는 수감 인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5~10개소에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이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군의 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 함경남도 화성군의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회령시의 22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군에 18호 관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에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약 4만 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수용소나 감옥 등에 감금돼 있다는 주장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1년 4월 26일 탈북자 1만 3,00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한국의 경찰서 유치장과 비슷한 구류장과 노동단련대가 각각 210여곳, 교화소 23곳, 교양소 5곳, 집결소 27곳, 정치범수용소 6곳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3대가 멸족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 참혹한 생활을 하는 10만여명의 기독교인들과 같힌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악한 진들이 무너져 주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수요일의 기도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북한 헌법 제 5장 68조에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순교이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오늘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 앞에 절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순전하지 못하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갈등하며 아파한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기독교의 경우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출처: 2011 북한 인권백서, 통일연구원)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상 앞에 나아가 절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신음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목요일의 기도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홍수피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북한에 덮친 구체적인 시기로, 이때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기근현상이 속출하였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 666만 톤이던 곡물생산이 1995년 337만톤으로 급감한데 이어, 1996년과 1997년 각각 224만 톤과 258만 톤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결국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백만 톤 이상의 곡물을 도입하였으나,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최소 약 35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2013년에서 2023년까지의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며 10년 후에도 가장 심각할 것으로 평가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6 굶주림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인구의 41.6%가 영양실조로 1990년의 21%, 2010년의 32%보다 크게 나빠졌으며, 북한의 식량 부족상황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족한 식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금요일의 기도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4년 7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북한 이탈주민/새터민)는 34,121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70% 이다. 이외에 중국의 변방지역에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복음을 영접 후 훈련되어져 다시 북한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 중국의 변방지역에 삼엄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탈북자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의 기도 북한 핵 시설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은 1955년 4월의 과학원 제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한 후부터 출발했다. 현재 평안북도 태천, 영변, 박천, 평안남도의 순천, 평양, 황해북도 평산, 함경남도 신포 등에 핵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06년 4월 3일 북한은 이미 3개에서 최대 6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는, 이것이 1994년 제네바 협상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아홉 번째로 핵클럽에 가입했다.

한편 북한은 1960년대부터 화학전 장비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격적 화학전 능력을 강조한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부터는 각종 화학작용제의 대량 생산 및 비축, 대규모 살포 및 투발 수단의 발전을 이뤄 왔다는 것이다. 신의주, 만포, 아오지, 청진, 강계, 함흥, 안주, 순창 등에 화학작용제 생산시설을 갖추어 현재 신경 작용제 등 2,500~5,000톤에 달하는 12종의 화학작용제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 작용제의 경우 그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 등 4종에 대해 연간 1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 했다는 평가이다. (출처: 모퉁이돌선교연구원 주간 분석 시리즈 09-13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사망의 그늘을 드리우는 핵무기 제조의 요충지역들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핵무기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CORNERSTONE www.cornerstone.or.kr

모퉁이돌선교회 (06336)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2088호 전화(02)796-8846 팩스(02)792-7567 이메일 main@cornerstone.or.kr Cornerstone Ministries Int'l(미국) P.O.Box 4002 Tustin. CA 92781 Phone (714)484-0042 Fax (714)484-0016 e-mail info@cornerstoneusa.org Cornerstone Ministries of CANADA(캐나다) 10-8707 Dufferin Street Suite #119 Vaughan, ON L4J 0A6 Phone (416)206-9191 e-mail info@cornerstonecanada.org